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이 원전 안전성 확보를 넘어 '안심'으로 가기 위해 세계적인 원전 안전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정부의 유럽 경제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9일 원전 안전의 세계적인 전문기관 독일 티유브이슈드사와 원전의 운영전반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의 진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한수원은 티유브이슈드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최근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의 안전 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수원, 독일 TÜV-SÜD사와 MOU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최근 국내 최초로 폐기물고형연료(RDF)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상공에너지, 한라산업개발,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등 사업 참여사 및 투자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약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익산 제2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내년 1월 준공 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프로젝트금융약정 체결로 소요재원 확보가 완료됐다.

이 사업은 버려지는 쓰레기로부터 친환경·고효율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부발전, 익산 2산업 집단에너지사업 PF 약정



서부발전, 동두천내 LNG복합화력 발전소 개발 추진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이 삼성물산(대표 정연주), 현대산업개발(대표 박창민)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 내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두천시 광암동 일원에 1500MW (750MW급×2Block) 설비용량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규모만 약 1조 3440억 원에 이른다.

사업비는 각 참여사들의 자본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약 8500GWh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가구당 연간 사용 전력량을 5700kWh로 예상했을 때 14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1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남부발전 “KEEPS로 글로벌 발전회사 도약”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최근 청평 풍림리조트에서 남호기 사장 및 회사 임직원들과 삼정 KPMG 컨설팅 박용수 대표 등 프로젝트 용역 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RP 시스템인 'KEEPS' 구축의 성공적 완료를 축하하는 'ERP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KEEPS(킵스, KOSPO Evolutionary Efficient & Powerful System)로 명명된 남부발전의 ERP 구축 프로젝트는 2009년 9월 시작된 이후 10개월간의 구축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일 통합가동에 들어갔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등 7개월의 안정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이번에 준공됐다.

남부발전의 ERP 구축 프로젝트는 전력그룹사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한 'ERP 공동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한편 이번 준공으로 경영자원 활용의 최적화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스피드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사장 안승규)은 지난 26일 대림산업과 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102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MOU에 따라 총 4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이번 사업에서 한국전력기술은 사업개발을 비롯해 기초조사, EPC 업무, 사업관리 등 사업전반을 주관하고 대림산업은 해상 건설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전력기술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차입자본조달 등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주해상풍력발전단지 착공에 나서 2013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대림산업, 제주해상풍력발전사업 MOU 체결



● APR1400 원전 최초 시운전정비공사 기전 및 계측 분야 동시 수주

한전KPS(사장 태성은)는 지난달 12일 신고리 3,4호기 시운전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신고리 3,4호기는 신고리 1,2호기 인접부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국내 최대 용량의 1,400MW급 신형경수로

한전KPS, 신고리 3,4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수주

(모델명 : APR1400) 원전이며, 이는 국내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UAE 수출 원전과 동일 모델이다.

특히 APR1400 원전은 지난 10년간 안전성과 경제성, 운전 및 정비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한국형 원전으로 신울진 1,2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등 후속호기와 동일한 3세대 신형 원전이다.

한전KPS가 수주한 이번 공사는 기계전기분야 공사비 144억 원, 계측분야 공사비 27억 원 등 총 171억 원 규모이며, 영광 5,6호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전분야와 계측분야를 동시에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공사기간은 2011년 5월부터 신고리 4호기 준공시점인 2014년 9월까지 약 40개월로, 한전KPS는 시운전 기간 동안 기계, 전기 및 계측설비의 계통인수, 특수시험 및 검사수행, 인수된 기기의 예방점검, 연료인수 및 초기연료장전 등과 함께 취약설비의 조기도출, 설비특성의 파악, 초기 측정 자료의 취득, 중장기 예방정비계획 및 정비프로그램 수집을 통하여 향후 업무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유럽 지게차 시장 공략 강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물류박람회에 참가, 최신 지게차를 선보이며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은 최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CeMAT 2011'에 국내 최초로 개발된 25t 초대형 지게차, 친환경 LPG 지게차 등 25대의 지게차를 전시했다.

35개국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중공업은 1045㎡(약 315평) 규모의 실내·외 부스에 성능과 운전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최신 모델들을 출품, 전 세계 딜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25t급 초대형 지게차는 국내 최대 용량으로, 대형화 추세에 맞춰 지난해 9월 출시한 18t급 지게차의 후속 모델이다.

주로 항만이나 제철소, 조선소 등지에서 중량물 운반에 사용되는 이 지게차는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연료시스템(HPCR : High Pressure Common Rail)을 적용한 260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양물의 무게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로드 인디케이터 기능과 자기진단기능, 오토 크루즈 기능 등 최첨단 사양을 적용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LS산전은 지난달 23일 청주 1사업장에서 CEO인 구자균 부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카 핵심 부품인 EV Relay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EV Relay는 차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파워 트레인(Power Train)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 또는 안전하게 차단하는 제품으로, 고압·고전류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경량화, 저소음화가 기술의 핵심이다.

LS산전은 이번 기공식에 앞서 지난 3일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까지 545억 원의 투자와 160여명의 신규 인력 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EV Relay 공장 건설은 협약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설비투자를 포함해 공장 준공에 총 314억 원을 투자, 지상 2층, 지하 1층을 포함, 연 면적 1만3680㎡(4138평) 규모로 건설된다.

1, 2층에는 공장과 시험실이, 지하 1층은 유틸리티(Utility) 동으로 구성되어, 내년 1분기 중 완공 후 입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했다.

LS산전, 그린카 부품 양산체제 구축



GS파워, 4.8MW급 연료전지 준공



GS파워(사장 손영기)는 지난달 3일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에서 손영기 사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학식 에너지관리공단 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4.8MW급 발전용 연료전지 준공식' 을 가졌다.

연료전지 발전은 연소과정에서의 소음이 없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뛰어나 도심지 전력 공급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이날 준공을 맞은 GS파워 연료전지발전소는 전기만 생산하는 기존의 용융 탄산염형(MCFC)과는 달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인산형(PAFC)고효율 발전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작년 7월 완공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발전차액을 지원받음으로써 연간 36억 원의 전력부문 수익과 약 6억 원의 지역난방 열 생산비 절감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초고압케이블 첫 출하



미래 대한전선의 글로벌 생산기지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당진 공장에서 역사적인 첫 물량이 출하됐다.

대한전선(대표이사 손관호)은 당진공장에서의 생산물량 중 132kV 초고압 케이블 완제품을 첫 출하, 평택항에서 선적 후 쿠웨이트로 수출한다.

이번 출하는 지난 3월 당진공장 초고압케이블 공장에 대한 부분 준공을 마치고 시운전 기간을 거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 물량은 대한전선이 지난해 10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개월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쿠웨이트 사드 지역(SAAD AREA) 변전소간 연결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전선 당진공장은 단일 전선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160.5m에 이르는 초고압케이블 타워 역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KEA